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신미경¹⁾ · 이해련¹⁾ · 원종순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살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연령대별로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층의 자살 사망원인이 더 높고 특히 20~29세 사이의 자살률은 사망자 10만 명당 24.3명으로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이러한 청년층의 자살은 경제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사회문화적인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2004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인 자살예방대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발생하는 자살생각의 분석을 통하여 자살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많다. 자살생각은 자살 행동의 주요한 예측지표가 되며 자살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자살생각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Reynolds, 1988).

자살생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살생각과 관련성을 가진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자살생각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Kim, 2002). 자살생각의 주요 변인은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변인과 소외, 인지적 왜곡, 우울, 절망감, 충동성 등의 사회심리적인 변인으로 구분

된다(Kim & Kim, 2008). 그 중 주로 스트레스, 우울, 절망감, 자존감, 대처방식 등의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Kim, 2002; Kim, Jeon, & Kim, 2013; Kim & Kim, 200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살시도경험, 생활기능, 우울, 불안 및 무망감이(Park, 2012), 성별, 종교, 나이 및 대학생활 만족도(Kang & Ra, 2013) 또는 우울과 충동성, 부정적인 대처방식(Ha & An, 2008) 등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국외논문에서는 우울, 불안, 희망 없음(Nyer et al., 2013)과 사회적 지지, 우울(Wilcox et al., 2010), 적대감이나 분노(Zhang et al., 2012) 등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마다 이론적 배경과 연구대상자에 따라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변인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변인의 영향 미치는 정도에도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제시된 중요한 자살생각 변인은 대상자가 처해 있는 여러 환경적 요소로 초래되는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변인인 우울이었다. 자살생각의 주요인이 되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최근 심층연구들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나 자살생각이 증가하고,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져(Cho, 2009; Hong & Jeon, 2005; Lee, 2007)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Kang과 Ra (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학생의 건강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받

주요어 :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호대학생

1)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성남캠퍼스 교수(교신저자 E-mail: jswon@eulji.ac.kr)

접수일: 2013년 9월 26일 1차 수정일: 2013년 11월 20일 2차 수정일: 2013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5일

는다(Konick & Gutierrez, 2005). 대학생은 신체, 정신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후기와 성인 초기의 단계에 걸쳐있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로 가정과 학교로부터 보호받던 청소년에서 책임, 의무, 사회적 적응을 요구받는 성인의 지위를 준비하기 위한 부담과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Chon, Kim, & Yi, 2000).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가치관 수용, 학업문제,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경제문제, 이성문제 등 매우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인해 취업 및 장래 문제, 비싼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Chon et al., 2000; Kang & Ra, 2013; Yang, Bang, & Kim, 2012). 특히 간호대학생은 낮은 장소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오는 스트레스나 실수를 하면 안되는 부담감, 많은 학업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Pulido-Martos, Augusto-Landa, & Lopez-Zafra, 2012), 간호학과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교과과정, 엄격한 행동규범,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중압감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Jung & Shin, 2006).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과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였을 뿐(Cho, 2009) 우울이나 자살생각을 촉진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공통적으로 제시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수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살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특수한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이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살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자살 방지를 위해서는 자살생각이 자살 시도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방안 모색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

석한다.

-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4년제 대학의 간호학생으로 K도와 C도에 위치한 2개 종합대학에서 연구참여 희망자를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연구자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내용, 보상을 설명하여 자발적인 연구 참여를 유도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동의서의 내용에는 설문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 보장 및 설문에 참여하는 중간 언제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이었고,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3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의 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α)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투입될 독립변수 14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 89명으로 산정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31명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되어 불충분한 7부를 제외한 124부를 최종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 생활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생활스트레스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량화를 위해 Chon 등(2000)이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로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8개 원인(당면과제: 학업, 경제, 장래진로, 가치관 문제; 대인관계: 친구, 이성, 가족, 교수와의 관계)의 5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사건에 대해 경험 빈도와 중요도를 0에서 3까지의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경험빈도와 중요도의 곱으로 총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스트레스 생활사건

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거나, 경험하였어도 그 생활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모두 0점 처리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총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고 경험한 사건의 중요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n 등(2000)이 개발당시 Cronbach's alpha가 .75~.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7~.86이었다.

●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총 21문항의 4점 척도이다.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하고 절단점은 16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Song (1991)이 표준화한 BDI 수정판을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와 Song (1991)에서는 Cronbach's alpha가 .7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 자살생각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은 Reynolds (1988)에 의해 개발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를 Shin (1992)이 번역한 3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생각한 적 없다'(1점)에서 '거의 매일 생각한다'(7점)의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1992)의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97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측정 변수 각각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측정 변수의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Tukey 검정으로 분석하고 측정 변수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자살생각의 유의한 상관관계 변수로 확인된 6개 영역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회귀시켰다. 회귀분석의 변수 중 명목변수는 더미 처리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0, 여성은 1,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하지 못함'은 0, '보통' 이상은 1의 값을 갖도록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2개의 통제변수를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회귀시켰고 2단계에서는 2개의 통제변수에 6개의 생활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더하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Age (yr)			20.58±2.27
Gender	Male	30 (24.2)	
	Female	94 (75.8)	
Year	First	41 (33.1)	
	Second	38 (30.6)	
	Third	11 (8.9)	
	Fourth	34 (27.4)	
Family income (million Won/month)	<300	40 (32.3)	
	300~500	48 (38.7)	
	>500	33 (26.6)	
	Missing	3 (2.4)	
Allowance (thousand Won/month)	<300	31 (25.0)	
	300~350	63 (50.8)	32.97±16.24
	>350	26 (21.0)	
	Missing	4 (3.2)	
Smoking	Yes	14 (11.3)	
	No	110 (88.7)	
Alcohol consumption	Yes	103 (83.1)	
	No	21 (16.9)	
Exercise	Yes	45 (36.9)	
	No	79 (63.7)	
Perceived health status	Not healthy	15 (12.1)	
	Moderately healthy	46 (37.1)	
	Healthy	63 (50.8)	
Body Mass Index			22.22±6.32

중속변수인 자살생각에 회귀시켰고 3단계에서는 2단계에 우울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중속변수인 자살생각에 회귀시켰다.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각각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는 1.009~2.239로 10미만으로 작고, 공차한계는 .482~.991로 .10보다 커서 자료의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rbin Watson 2.254로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만족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년, 가정의 월수입, 용돈, 흡연, 음주, 운동,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도를 분석하였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58±2.27세였고 여학생이 75.8%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300~500만원이 38.7%, 용돈은 30~35만원이 50.8%로 가장 많았다. 흡연자는 11.3%, 음주자는 83.1%,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63.7%를 차지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50.8%,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22.22±6.32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본 연구대상자의 당면과제 생활스트레스 총점의 평균은 40.65±32.17점, 문항 평균은 1.51점이었고, 대인관계 생활스트

레스 총점 평균은 8.35±11.70점, 문항 평균은 0.36점이었다. 당면과제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스트레스 원인별로는 학업문제의 문항평균이 2.2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제문제(1.30), 가치관 문제(1.28), 장래문제(1.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문항평균은 가족관계(0.50)가 가장 높았고, 이성 친구와 교수와의 관계(0.38), 친구관계(0.17) 스트레스 순이었다. 우울은 총점 평균 8.40±5.94, 문항 평균은 0.40이었으며, 절단점인 16점 이상의 대상자는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자살생각의 총 평균은 44.45±19.21, 7점 척도의 문항 평균은 1.4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 점수가 높았으며($t=-2.57, p=.012$),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자살생각 점수가 높았다($F=3.74, p=.027$)(Table 3).

연구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우울($r=.54, p<.001$)과 학업문제($r=.24, p=.008$), 장래문제($r=.25, p=.005$), 가치관 문제($r=.55, p<.001$), 친구관계($r=.43, p<.001$), 가족관계($r=.45, p=.001$) 및 교수관계($r=.28, p=.002$) 스트레스 이었다(Table 4).

Table 2. Mean Scores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N=124)

Variables (Number of items)	N (%)	Mean of TS (SD)	Min of TS	Max of TS	Mean score for items	Possible range of scores
Life stress total (50)		47.54 (36.06)	0	153	0.95	0~9
Life stress related to tasks (27)		40.65 (32.17)	0	146	1.51	
Study (7)		15.91 (13.09)	0	52	2.27	
Economy (7)		9.09 (11.48)	0	57	1.30	
Future (8)		9.31 (9.14)	0	46	1.16	
Value (5)		6.41 (7.17)	0	27	1.28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s (23)		8.35 (11.70)	0	56	0.36	
Friend (5)		0.83 (2.26)	0	12	0.17	
Lover (6)		2.28 (5.07)	0	29	0.38	
Family (6)		2.99 (5.97)	0	41	0.50	
Faculty(6)		2.25 (3.61)	0	15	0.38	
Depression (21)		8.40 (5.94)	0	25	0.40	0~3
≥16	19 (15.3)					
< 16	105 (84.7)					
Suicidal Ideation (30)		44.45 (19.21)	28	149	1.48	1~7

TS=Total Score

Table 3. Differences in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uicidal Ideation			
		M±SD	t or F	p	Tukey
Gender	Male	38.67±11.24	-2.57	.012	
	Female	46.30±20.84			
Year	First	47.98±21.30	0.482	.631	
	Second	43.08±15.63			
	Third	55.45±35.08			
	Fourth	38.18±8.94			
Smoking	No	40.14±10.10	-.890	.375	
	Yes	45.00±20.03			
Alcohol consumption	Yes	44.76±19.96	0.391	.696	
	No	42.95±15.33			
Exercise	Yes	45.56±20.73	0.48	.601	
	No	43.82±18.39			
Perceived health status	Not Healthy ^a	53.33±20.47	3.74	.027	a>c
	Moderately healthy ^b	47.26±20.73			
	Healthy ^c	40.29±16.82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4)

Variables	Suicidal Ideation	BDI	LS study	LS economy	LS future	LS value	LS friends	LS lover	LS family	LS faculty	Age	Allowance	BMI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Suicidal Ideation	1												
BDI	.54 (<.001)	1											
LS study	.24 (.008)	.52 (<.001)	1										
LS economy	.18 (.052)	.34 (<.001)	.49 (<.001)	1									
LS future	.25 (.005)	.57 (<.001)	.54 (<.001)	.32 (.001)	1								
LS value	.55 (<.001)	.69 (<.001)	.56 (<.001)	.40 (<.001)	.61 (<.001)	1							
LS friends	.43 (<.001)	.10 (.249)	.15 (.100)	.20 (.026)	.17 (.054)	.15 (.102)	1						
LS lover	.10 (.277)	.15 (.088)	.11 (.240)	.09 (.349)	.20 (.023)	.13 (.165)	.14 (.120)	1					
LS family	.45 (.001)	.34 (<.001)	.09 (.334)	.02 (.843)	.36 (<.001)	.36 (<.001)	.29 (.001)	.25 (.005)	1				
LS faculty	.28 (.002)	.14 (.109)	.05 (.583)	.03 (.730)	.10 (.284)	.24 (.007)	.34 (<.001)	.37 (<.001)	.28 (.002)	1			
Age	-.16 (.071)	-.12 (.179)	-.10 (.251)	-.02 (.796)	-.04 (.651)	-.14 (.120)	-.12 (.179)	-.08 (.382)	-.10 (.286)	.04 (.653)	1		
Allowance	-.18 (.051)	-.11 (.248)	-.06 (.493)	.08 (.383)	-.31 (.001)	-.03 (.712)	-.12 (.181)	.07 (.436)	-.15 (.096)	-.09 (.306)	.31 (<.001)	1	
BMI	.02 (.816)	.04 (.636)	-.01 (.876)	.08 (.942)	.02 (.860)	-.03 (.706)	-.02 (.810)	-.03 (.717)	.02 (.813)	.03 (.705)	.09 (.350)	.17 (.062)	1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ies; LS = Life stress; BMI=Body Mass Index

생활스트레스,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우울과 6개 영역의 생활스트레스 원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살생각의 차이를 나타낸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위

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2개의 통제변수만을 포함하고 있는 Model 1은 자살생각의 4%를 설명하였으나 유의한 영향을 미친 통제변수는 없었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생활스트레스를 고려한 Model 2는 자살생각변이의 47%를 설명하였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장래문제($\beta=-.19, p=.039$), 가치관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n Suicidal Ideation

(N=124)

Variables	Model 1 β (<i>p</i>)	Model 2 β (<i>p</i>)	Model 3 β (<i>p</i>)
Gender	.16 (.082)	.01 (.880)	.03 (.653)
Perceived health status	-.16 (.079)	-.14 (.059)	-.04 (.546)
LS future		-.19 (.039)	.04 (.660)
LS value		.58 (<.001)	.41 (<.001)
LS study		-.09 (.350)	-.11 (.216)
LS family		.21 (.010)	.19 (.014)
LS friend		.34 (<.001)	.34 (<.001)
LS faculty		-.01 (.924)	-.01 (.927)
Depression			.36 (<.001)
F (<i>p</i>)	3.44 (.035)	14.90 (<.001)	16.18 (<.001)
R ²	.05	.51	.56
Adj R ²	.04	.47	.53

LS=Life Stress

문제($\beta=.58, p<.001$), 가족관계($\beta=.21, p=.010$) 및 친구관계($\beta=.34, p<.001$)이었다.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생활스트레스, 우울을 모두 고려한 Model 3는 자살생각변이의 53%를 설명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가치관 문제($\beta=.41, p<.001$), 가족관계($\beta=.19, p=.014$), 친구관계($\beta=.34, p<.001$) 및 우울($\beta=.36, p<.001$)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살예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정도의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 보다는 당면과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는데 이는 일반 대학생(Lee, 2004; Lee, 2007)의 경우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스트레스 원인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즉, 본 연구대상자는 장래문제나 가치관 문제 보다 학업과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데 반해 일반 대학생의 경우(Lee, 2004; Lee, 2007)는 장래문제와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장래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인 일반 대학생과 달리 간호대학생의 장래문제 스트레스가 매우 낮은 것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높은 취업률과 관련된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이 친구보다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대학생(Lee, 2004; Lee, 2007)이나 고교생(Hong & Jeon, 2005)의 경우와 유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 역시 Yang 등(2012)의 대학생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자살생각 정도는 Lee (2007)의 대학생이나

Woo, Park과 Jeong (2010)의 고교생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은 성차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2012), 중고생 대상의 연구(Woo et al., 2010), 노인 대상 연구(Kim et al., 2013) 등 다양한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와 반대로 성차가 보고되지 않은 연구(Cho, 2009; Lee, 2007)도 있지만 대체로 자살생각의 경우 여성이 일관되게 남성보다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성차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여성은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보다 내면화하도록 양육되었기 때문에 자살생각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남성보다 더 많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의 경우 기분전환을 위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부정적 기분을 잘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자살생각 발생 비율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Woo et al., 2010). 한편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집단보다 자살생각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질환이 없는 노인보다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는 Kim 등(2013)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중 하위변수인 당면과제 스트레스의 가치관 문제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가족 문제, 친구 문제 및 우울이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인 간호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자살이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채를 쓰는 등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사실이 신문에 보고된 바 있으며(Finance and Economy News, 2008),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자살원인으로 학업스트레스 및

성적 하락이 가장 많은 영향요인으로 조사되었고 (Park, 2012; Woo et al., 2010), 대학생은 학업이나 경제문제 혹은 대학생활에의 적응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Konick & Gutierrez, 2005)과 비교해 볼 때, 간호학생들은 특히 가치관 문제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 요인 중 가치관 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beta=.41$ 로 가장 커서 자살생각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Park과 Shin (1991)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문제, 장래문제, 외모, 대인갈등 등이 자살생각의 주요 요인인 것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경우 가치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ikson (1968)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아정체감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이 적성이나 목표와는 무관하게 전공을 선택한 후 대학생이 된 후에야 자신과 장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가치관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발달과업은 정체감 확립과 친밀감 형성이나 가치관 혼란으로 이에 실패할 경우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없거나 보살핌과 지지적인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느낌을 가져 자살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Yang et al., 2012). 자살생각 예방 및 경감을 위해서는 간호학생이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적응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간호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Kang & Ra, 2013; Park, 2012)와 일치한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Gallup Korea, 2011) 신뢰와 사랑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점차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절친한 관계가 깨지면 이들로부터 고립되고 자살기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Hong & Jeon, 2005; Woo et al., 2010). 국외연구에서는 가족 문제가 가정폭력이나 부모의 우울로 초래된다고 조사되었으나(Wilcox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생각 위험집단에 속하는 대학생이 비위험 집단 보다 가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는 연구결과(Sohn, 2007)와 가족의 의사소통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보고(Park, 2012) 외에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족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

하여 이들에 대한 지지체계 마련 등의 간호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Kang & Ra, 2013; Park, 2012)와 일치하였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도 친구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이라고 보고한 Woo 등(2010)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최근 뉴스보도에서 ‘간호사 자살한 이유가 태움’이라는 기사 제목 하에 간호사들의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Choi, 2013), 이러한 조직 문화가 대학생활에서부터 형성된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환자간호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간호교육 현장에서 엄격한 학생교육이 학습되어 학교생활에서 선후배나 친구 관계에서도 과도하게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는지 원인적 조사와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친구관계로 고민하는 간호대학생의 심층 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의 학생지도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Kang & Ra, 2013; Lee, 2007; Wilcox et al., 2010; Yang et al., 2012)에서 우울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이라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우울은 간호학생의 자살생각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의 우울이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Cho (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맥락이다. 간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건강은 필수 요건인데, 오늘날의 간호는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인 측면까지 돌보는 전인적인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Shelly & Fish, 1988). 정신건강은 예비간호사인 간호학생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은 우울의 부정적 감정이 있어도 취업에 장애가 될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모니터링하고 우울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혹은 경감하는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물론이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는 간호대학생이 필요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도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문제, 학업문제 및 교수관계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Kang & Ra, 2013; Park, 2012)와 일치하였으나 Lee (2007)의 학업 문제와 장래문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학은 전문직으로서 타 전공에 비해 취업이 비교적 잘 되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교과목과 이론 교과목에 대한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추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124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된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일반적 특성 변인들을 포함하여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이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자살생각 점수가 높았다. 아울러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우울, 학업문제, 장애문제, 가치관 문제, 친구관계, 가족관계 및 교수관계로 초래되는 스트레스이었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자살생각의 53%를 설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치관 문제, 가족관계, 친구관계 및 우울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이 가치관 문제,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타 연구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대학생의 특수한 자살생각 요인들은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자살예방 증재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조사대상이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화시키기에 무리한 점이 있으나 향후 간호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본 연구결과 가치관 문제, 가족관계, 친구관계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구조화된 설문지가 아닌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특수한 환경에서 초래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Cho, H. S. (2009). Relationship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tendencies in nursing student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2, 3-14.

Choi, W. Y. (2013). *Bullying as a cause of nurse suicides*. Retrieved November 16, 2013, from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0613142058945>

Chon, K. K., Kim, K. H., & Yi, J. S. (2000).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 316-335.

College students, underachieving college tuition, suicides. (2008, September 2). *Finance and Economy News*, p. 12.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Fish & Shelly (1988).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Gallup Korea (2011). *The philosophy of Koreans*. Seoul: Gallup Korea Research Company.

Ha, J. H., & An, S. H. (2008). The verification of a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of suicidal ideation to stress, coping style, perfectionism, depression, and impulsiv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 1149-1171.

Hong, Y. S., & Jeon, S. Y. (2005).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19, 125-149.

Jeong, M. H., & Shin, M. A.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 170-177.

Kang, S. H., & Ra, D. S. (2013).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between senior student' university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4), 49-71.

Kim, H. S.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72.

Kim, H. S., June, K. J., & Kim, Y. M. (2013).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 349-363.

Kim, H. S., & Kim, B. S. (2008). A comparative study on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 325-343.

Konick, L. C., & Gutierrez, P. M. (2005). Testing a model of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5, 181-192.

Lee, E. H. (2004). Lif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ollege students: Testing for moderating effects of coping style with structural equation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 25-52.

Lee, J. Y. (2007).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98-113.

Nyer, M., Holt, D. J., Pedrelli, P., Fava, M., Ameral, V., Cassiello, C. F., et al. (2013). Factors that distinguish college students with depressive symptoms with and without suicidal thoughts.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25, 41-49.

Park, G. B., & Shin, M. S. (1991). Perceived stress and

- suicidal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298-314.
- Park, S. R. (201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Pulido-Martos, M., Augusto-Landa, J. M., & Lopez-Zafra, E. (2012). Sources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studi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9, 15-25.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helly, J. A., & Fish, S. (1988).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3rd e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 Statistics Korea (2011). *2011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Seoul: Statistics Korea.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Sohn, J. N. (2007). Discriminating power of suicidal ideation by life stress,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6, 267-275.
- Wilcox, H. C., Arria, A. M., Caldeira, K. M., Vincent, K. B., Pinchevsky, G. M., & O'Grady, K. E. (2010).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persistent suicide ideation, plans, and attempts during colleg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7, 287-294.
- Woo, C. Y., Park, A. C., & Jeong, H. H. (201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human relations,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by genders and level of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 19-38.
- Yang, K. M., Bang, S. Y., & Kim, S. Y. (2012).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Stress Research*, 20, 41-50.
- Zhang, P., Roberts, R. E., Liu, Z., Meng, X., Tang, J., Sun, L., et al. (2012). Hostility, Physical Aggression and Trait Anger as Predictors for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A School-Based Study. *PLoS ONE*, 7, e31044.

Influence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Shin, Mee-Kyung¹⁾ · Yi, Hyeryeon¹⁾ · Won, Jongsoon²⁾

1)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level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nd to identify the associated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SI) among college nursing students. **Method:** The design of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design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Data collection was done using self-questionnaire from 124 students in 2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tudy participants reported low level of SI, depression, and life stress (44.45 ± 19.21 , 8.40 ± 5.94 , 40.65 ± 32.17). The 53% of variance in SI was significantly explained by life stress related value ($\beta = .41$, $p < .001$),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amily ($\beta = .19$, $p = .014$), life stres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ship with friends ($\beta = .34$, $p < .001$), and depression ($\beta = .36$, $p < .001$). **Conclus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o decrease the SI in these students, an active interest in the students is needed to lower stress level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in life stress related to value, and for relief of depression. Suicide prevention programs specific to the level of life stress and depression need to be developed for nursing students.

Key words : Life str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Won, Jongsoon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713 Korea

Tel: 82-31-740-7202 Fax: 82-31-740-7359 E-mail: jswon@eulji.ac.kr